

미국의 양심, 하워드 진의 목소리에 주목한 이유

광주민중항쟁의 교훈에서 ‘반미’ 운동이 등장한 1980년대 중반 이래 ‘주한미군철수’는 10여년 넘게 재야와 대학가에서 한 번도 그친 적 없는 메아리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SOFA의 불합리성과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에 비로소 폭넓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매항리 사건, 노근리 사건, 1994년의 한반도전쟁 위기,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효순 미선 살인사건, 9·11사건 이후에 등장한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등을 거치기까지 거의 또 한번의 10년을 기다려야 했다.

이에 우리 편집부는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책을 국내에 소개하자는 계획으로 지난 2000년부터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노암 촘스키), 《미국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정육식 외), 《전쟁이 끝난 후》(타리크 알리 외), 《숙명의 트라이앵글》(노암 촘스키) 등을 연달아 선보인 바 있다.

9·11사건 이후 부시 행정부가 보여준 대외정책은 전 세계에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을 가져 왔다. 그에 따라 우리 편집부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좀더 본격적으로 비판해 보자는 취지에서 ‘전쟁에 반대한다’라는 컨셉으로 일련의 책들을 기획하게 됐다. 올해에 연달아 선보인 《평화네트워크》 정육식 대표의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부시의 예방 전쟁과 노무현의 예방 외교》와 하워드 진의 《전쟁에 반대한다》(2003)도 그 기획의 일환이었으며, 곧 출간될 《보이지 않는 전쟁 Private Warrior》(켄 실버스타인), 《반전의 논리

Terrorism and War》(하워드 진), 《하워드 진의 미국사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492-Present》(하워드 진)도 이 기획에 속한 책들이다.

우리는 몇몇 독자분들에게 왜 하워드 진의 책에 지금 그렇게 주목하느냐는 문의전화를 종종 받아 왔다. 사람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전운동가하면 노암 촘스키를 먼저 떠올린다. 그렇지만 노암 촘스키의 ‘정치적 저작들’이 국내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기 시작한 것도 몇 년 안 된다. 그리고 물론 미국에는 노암 촘스키 이외에도 평생을 반전 평화운동에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특히 역사학자인 하워드 진은 “역사는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일관된 자세로 저술과 강연, 행동에 임하며 20여 권의 저서를 엮어 낸 바 있다.

하워드 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폭격기를 타면서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은 바 있다. 진은 “전쟁이야말로 금세기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지켜 나아가고 자신들의 권리를 신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게 이렇게 응수한다. 전쟁은 늘 우리의 자유를 축소시켜 왔다고, 우리의 자유가 신장된다면 그것은 전쟁이나 정부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나아가서 하워드 진은 “정당한 전쟁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현대전의 어마어마한 전력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정당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으며, 그에 따라 “그 당시에는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목적이라도, 결국에는 수단이 목적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폭군을 무찌른다거나 침략을 막아낸다거나 그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결국에는 수단이 불러일으킨 공포가 이 목적을 잡아먹기” 마련이라는 것이 하워드 진의 결론이다. 전쟁에서 수단이라는 악이 제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목적 달성은 늘 불확실하기 마련인 한,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서도 어떻게 악, 폭군, 억압을 다룰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제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하워드 진은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조선소 노동자로 떠돌다 흑인 민권운동이 한창이던 남부에서 본격적으로 대학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하워드 진의 목소리에는 아주 평범한 흑인 소녀, 이름 없는 퇴역 군인, 주변의 이웃, 발랄한 젊은이들, 즉 역사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이 여겨지던 존재의 목소리가 겹쳐 들린다.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다가 어느 순간 거대한 물결을 이루게 된 모습을 지켜봐 온, 그리고 그 물결에 몸 담았던 하워드 진의 목소리에는 남다른 힘이 있다. 그래서일까? “나는 역사에서 절망보다는 희망을 발견하려 애씁니다”라는 그의 말은 공치사로 들리지 않는다.